



새만금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착공식
29일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서 열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착공식에서 고정삼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착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3년... 생산성 74%·품질 51% 향상 ‘성과’

도, 익산 효진산업서 성과보고회
189개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물류 35% 개선·비용 27% 절감
삼성전자·제조회사 노하우 접목

전북도가 29일 익산의 유압기기 제조업체인 효진산업에서 전국 최초의 지역 주도 스마트공장 사업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3개년(‘24~’26년)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원택 도지사를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최정호 익산시장, 참여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현장 우수 사례, 삼성전자와의 협업 결과를 공유했다.

행사는 프로젝트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추진성과 및 개선 방안 보고, 기업 혁신사례 발표, 우수사례 부스 관람, 현장 투어 순으로 이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의 제조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전북자치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책사업으로 제도화한 민관 협력 모델이다. 대기업 출신 제조혁신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임직원과 함께 작업환경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꿔왔으며 전문인력 교육과 기술·판로 지원도 병행했다.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도내 기업은 모두 189개사로,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기초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초 단계가 172개사,

IoT·AI 기술 등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고도화 단계가 17개사다.

이 가운데 2024~2025년 구축을 마친 133개사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74%, 품질은 51% 향상됐고, 물류는 35% 개선되고 비용은 27% 절감됐다. 수혜기업 25개사는 청년 130여 명을 새로 채용했다.

보고회가 열린 효진산업은 자동절단설비에서 나오는 생산 데이터를 수집해 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생산 과정의 불량과 현장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멘토들과 함께 파이프 적체대를 제작하고 스크랩 재 활용률을 끌어올린 결과 재고율은 33% 줄었고, 시간당 생산량은 97%, 창고 적재율은 100% 늘었다.

형우생 효진산업 대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알고도 실행하거나 개선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바꿔주어 감사하다”며 “전북형 멘토들과 함께 이룬 성과를 보며 지방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효진산업 외에도 혁신활동, 판로개척, 지역 상생 등 분야별 우수 사례가 전시돼 전북형 스마트공장의 성공 사례를 선보였다. 기존 공정혁신에 더해 물류 혁신, 전문 기술, 환경안전 분야 멘토를 연계한 결과, ‘참식품’은 제품 일체형 생산라인을 구축해 일일 생산량을 10% 늘렸고 ‘한국푸드김제’는 급행 온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프레스 공정 불량률을 38% 개선했다.

/장정철 기자

도, 새만금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착공

1,066억 투입 100ha 규모 조성
AI·자율주행·로봇 기술 실증
농기계 성능·안전검증 기반 구축
개발부터 검인증까지 원스톱 지원

새만금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농기계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가 들어선다.

도는 29일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서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김제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농기계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첨단 농기계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제 영농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증단지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066억 원(국비 714억 원, 도

비 176억 원, 시비 176억 원)을 투입해 100ha 규모로 조성된다. 김제시가 사업을 시행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위탁 수행한다.

전체 부지 중 95ha에는 수도작 실증부지 38ha, 전작 실증부지 46.9ha, 주행 실증부지 7.4ha와 기반시설 2.7ha가 들어선다. 벼농사와 밭농사 등 다양한 영농환경에서 농기계의 작업 성능과 주행 능력,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시험하게 된다.

나머지 5ha에는 종합관리동과 검인증 분석동, 소형·대형 격납고, 자율주

행시험장 등을 갖춘 검인증지원센터가 조성된다. 농기계 완성차와 부품의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증부지 조성공사는 2027년 11월까지 진행되며, 검인증지원센터는 올해 12월 착공해 2028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실증장비 도입과 시험가동은 2028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실증단지가 완공되면 농기계 개발부터 현장 실증, 검인증까지 연계하

는 지원체계가 마련돼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새만금의 미래 농기계 산업 거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농업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농기계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새만금이 국내 농기계 산업의 지능형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여야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시켜라”

안호영,국회 정책세미나 공동주최
“30년 넘게 끊긴 동서3축 연결”
산업·물류·관광 연계 효과 강조



안호영 의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예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송언석·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주~성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미연결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 1월부터 한

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상북도·대구광역시 관계자들도 함께해 예타 통과를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에 반영된 동서3축 김제~포항 고속도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일부 구간만 개통됐을 뿐, 무주~성주~대구 구간은 단절된 채 남아 있었다”며 “이제 이 마지막 구간을 연결해 30년 넘게 기다려

온 영호남의 숙원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전북과 대구·경북의 산업·물류·관광을 잇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행량과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동서3축 완성이라는 국가간선망의 가치, 지역낙후도, 산업·물류 연계 효과,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인 김삼영 전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동서3축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추진 전

략’을 발제했다. 대한교통학회장을 지낸 이선하 국립공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허주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 박철우 강원대 교수, 김수성 대구정책연구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만의 사업도, 대구·경북만의 사업도 아닌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길”이라며 “영남과 호남이 함께 요구하고,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 정보

당신의 눈, 전북특별자치도의 힘

전북타임스

신속한 정보, 깊이 있는 분석, 공정한 보도

정확한 뉴스를 지금바로 만나보세요!

구독문의: 063)282-9600~3
홈페이지 :www.jeonbuktimes.co.kr

K-Pop 센터
K-Pop 센터

연북테크
건축발 센터

스마트농장
스마트창구

스마트농장
스마트 운영

연사기
역사사 투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소식

전북특별자치도

전북研, ‘전북 2027’ 발간…지역 트렌드 제시

3년 내 전북 변화 읽고 방향 제시
2027년 전북 정책 설계 길잡이
신사업·연구과제 발굴 기초 활용
AI·신흥위험 등 분야간 연계 강화

전북연구원은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목해야 할 변화와 정책방향을 담은 이슈브리핑 지역 트렌드, 전북 2027을 발간했다.

연구원이 처음 제시한 지역 정책 트렌드로, 지역이 가까운 미래에 준비해야 할 과제를 키워드로 정리했다. 국가 단위 전망을 넘어 지역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발간물은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지역 트렌드는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이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정책 방향을 뜻한다. 앞으로 3년 이내의 전북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은 여러

분야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트렌드는 전북도의 정책 방향 설정과 신규 사업 발굴, 전북연구원의 연구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쓰이는데 목적이 있다. 2027년은 민선9기 첫 본예산과 새 정부 국정과제가 본격 집행되는 해이다. 도 각 부서와 연구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정책을 설계하도록 돕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번 트렌드가 줄 기대효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도 각 부서가 하나의 트렌드 지도를 공유해 2027년 신규 사업과 2028년 정책 방향을 함께 설계한다. ▲신흥 위험, Medi 융합, AI 넥스트처럼 한 부서가 풀기 어려운 과제를 여러 분야의 연계 과제로 바꾼다. ▲초광역특별계정, 광역 물배분, 생활인구 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기존 제도의 변화에 전북의 논



‘지역 트렌드 전북 2027’ 중 ‘양코르 커리어’ 그래픽 <전북연구원>

리를 미리 준비한다. ▲트렌드 도출-정책 연구-사업 설계-성과 관리까지 이어지는 정책 순환 체계의 출발점이 된다. ▲BELLWETHER 키워드와 한 줄 정의로 도민과 쉽게 소통한다.

연구진은 “시대 변화를 먼저 겪는 지역은 뒤처진 사례가 되거나 길을 내는 선례가 된다”며 “이번 트렌드가 전북이

시대 흐름을 이끄는 방향을 다는 출발점이 되도록 도 각 부서와 함께 트렌드별 대응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옮기는 후속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트렌드는 정량분석과 정성 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조희대, 인사만 하고 자리 떠선 안돼”

“대법관 공백 210일째 장기화
국민 검증 받아야 마땅”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정 거부’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재제정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재제정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고,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제정 지연과 협의없는 제청, 재제정 거부로 인해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210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이 재제청권을 권력 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정 거부가 법원

행정처 등의 의견까지 묵살한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어제 열린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정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관례를 이유로 인사발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정을 몰아 보이콧 해서는 안된다”고 국민의힘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대법관 장기 공석의 경위를 밝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장기공백 사태의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농업 공익직불금, 매년 1만 건 넘게 위반”

2022~2025년 감액액 96억 달해
부정수급 5,864건…환수율도 하락
“기본적 의무도 안 지켜 취지 퇴색
부정수급 차단 등 대책 마련해야”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의무 준수사항 위반과 부정수급으로 인해 본래의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2~2025년) 농가들이 법적 의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

된 건수가 총 4만 7,131건에 달했고, 감액된 금액만 95억 7,93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만 1,560건(21억 6,700만 원), 2023년 9,990건(16억 9,800만 원), 2024년 1만 4,489건(24억 7,760만 원), 2025년 1만 1,092건(32억 3,670만 원)으로 해마다 1만 건 안팎의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 3,922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했다. 감액 금액으로도 전체의 65.8%인 63억 760만

원에 달해 실경작을 하지 않거나 폐경지 방치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가장 심각했다.

특히 농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위반의 폭증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2,703건(감액 3억 4,500만 원)이던 교육 미이수 건수는 2023년 3,929건, 2024년 4,602건에 이어 2025년에는 6,964건(감액 10억 8,000만 원)으로 4년 만에 2배나 급증했다. 이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도 4년간 2,260건(5억 9,920만 원)에 달해 먹거리 안전 분야 준수 의무 역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수사항 위반뿐만 아니라 고의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실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건수는 총 5,864건, 부정수급액은 58억 7,4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22년 1,147건(9억 2,600만

원) 수준이던 적발 건수는 2025년 들어 2,163건(18억 5,900만 원)으로 4년 만에 건수로는 88.6%, 부정수급액으로는 100.8% 급증했다. 반면 부정수급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합한 환수대상액(72억 4,700만 원) 대비 환수율은 2022년 91.4%, 2023년 92.0%에서 2024년 88.8%, 2025년 86.6%로 해마다 떨어져 미환수 잔액만 7억 6,100만 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소득 보조금이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가로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교육을 미연하고 농지형상조차 유지하지 못해 매년 1만 건이 넘는 위반이 속출하는 것은 직불제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가을 축제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전북도는 가을 축제철을 맞아 오는 10월 8일까지 지역 축제장과 인근 음식점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제 기간 방문객이 증가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국내산 젓소·육우의 한우 허위 판매 여부 등이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은

쌀·콩·배추김치 등 농산물 3개 품목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6개 품목, 낫치·조피불락·참돔 등 수산물 2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축제장에서 먹거리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축제 분위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 지역인재 취업률 72.5%…취업자 95% 도내 정착

‘지역특성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취업대상자 109명 중 79명 취업
취업자 94.9% 도내 기업으로

전북도는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지역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 대학, 기업과 함께 추

진하는 ‘지역특성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지·산·학 협력 기반의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모델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2월 졸업자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 참여 취업대상자 109명 가운데 79명이 취업해 전체 취업률 72.5%를 기록했다. 특히 취업자 79명 가

운데 75명(94.9%)이 도내 기업에 취업해 지역인재의 도내 정착으로 이어졌다.

이는 2025년 전국 일반대학 취업률 62.9%를 웃도는 수준으로, 기업의 인력 수요와 청년 취업을 연계해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특성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사전 채용연계 협약을 맺고, 1년간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거쳐 졸업 후 도내 기업에 2년 이상 의무 취업하는 인재양성 모델이다. 기업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된 지역 정착 기회를 제공한다.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돼 올해는 국립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

주대 등 4개 대학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수소모빌리티 등 11개 특성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LS엠트론을 비롯한 211개 도내 기업과 연계해 교육과정 개발부터 현장실습, 취업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도는 상반기 현장실태조사와 졸업자 취업현황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사업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할 계

획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도와 시·군, 대학,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높은 취업률과 도내 정착률을 함께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과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中企 경기회복 기대 다시 꺾였다”

전월보다 1.5p 하락 내수·수출·자금사정 전망 일제히 악화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 기대가 한 달 만에 다시 약해졌다. 내수와 수출, 영업 이익, 자금사정에 대한 전망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매출 부진을 최대 경영 애로로 꼽아 체감경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3,0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2026년 10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0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3.3으로 전월 84.8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SBHI는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

으로 전망한 업체가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전산업 계절조정지수는 81.5로 전월 81.4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7.3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81.4로 2.3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 가운데 건설업은 65.7에서 69.8로 4.1포인트 상승했지만 서비스업은 87.3에서 83.7로 3.6포인트 떨어졌다.

서비스업에서는 운수업이 82.7에서 91.9로 9.2포인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93.7에서 100.1로 6.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90.9에서 84.9로 6.0포인트, 도·소매업은 86.1에서 80.7로 5.4포인트 하락해 소비 관련 업종의 경기 불안이 두드러졌다.

경기변동 항목도 일제히 악화됐다.

수출 전망은 94.2에서 92.0으로 2.2포인트 하락했고 내수판매는 83.8에서 82.7로 1.1포인트 떨어졌다.

영업이익도 81.5에서 80.5로 1.0포인트, 자금사정은 81.8에서 80.9로 0.9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도 여전했다.

9월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매출(제품판매) 부진'을 꼽은 기업이 5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 38.8%, 업체 간 경쟁 심화 33.5%, 인건비 상승 28.2% 순이었다.

실제 생산현장의 가동률도 떨어졌다. 8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6%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소기업은 70.6%, 중기업은 76.9%로 각각 전월보다 0.6%포인트와 0.7%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매출 부진이 최대 애로로 나타나고 내수·수출·수익성·자금사정 전망까지 동반 하락한 만큼 중소기업 체감경기를 끌어올릴 정책 대응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수 소비와 판로 확대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정책금융과 보증 등을 통한 자금조달 부담 완화,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업종별 경기 흐름이 엇갈리는 만큼 일률적인 지원보다 서비스업과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취약 분야를 겨냥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조사 모집단에서 소상공인이 제외되는 등 표본설계가 개편돼 지난해 12월 이전 수치와의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최준호 기자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는 29일 군산 동원중학교에서 '농심천심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심천심' 쌀 소비촉진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는 29일 군산 동원중학교에서 국산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농촌의 가치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 '농심천심(農心天心)'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범석), 군산시의회 지역구 의원(김경식·김관우·서동완), 군산농협(조합장 박형기), 군산 보건소(소장 문다해), 군산 동원중학교(교장 이명희)가 함께 참석해 등교하는 동원중학교 전교생(약 800여명)과 교직원에게 군산 대표 쌀 품종인 신동진쌀로 만든 밥버거와 농협에서 국산쌀을 원료로 만든 식혜를 전달하며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확대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 농촌의 가치를 인식시켜 도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산보건소와 함께 청소년 급원 캠페인을 병행해 올바른 식습관 정착 뿐 만 아니라 건강한 학교생활 조성을 위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범석 지부장은 "신동진쌀로 만든 영양 가득한 아침밥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농협의 대표운동인 농심천심(農心天心)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쌀 소비 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지역농가와 의 상생,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입주 앞두고 추가분담금’… 완주 봉동 아파트 논란

준공 연장·공사비 증액 요구 비대위 “잔정거거 공개해야”

전북 완주군 봉동을 신축 아파트 '봉동한양립스텐탑포레'가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140억원이 넘는 공사비 증액과 가구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9월 30일로 예정됐던 준공일이 시공사 측의 공사 지연으로 10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된 데 이어, 시공사가 140억원이 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봉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완주경찰서를 찾아 완주군청과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 대한 집회 신고를 접수하고 공사비 증액 및 추가분담금

산정 근거 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가 확보한 10월 3일 임시총회 자료에 따르면 기존 공사도급금액 약 1010억9800만원에서 약 140억7673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액분은 물가상승분 약 57억4194만원과 설계변경·누락분 등 약 83억3479만원이다.

총회 자료에는 공사기간을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사비 증액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총회 자료에 제시된 공급별·층별 변경 분담금은 전용면적 59㎡ 약 4880만원, 72㎡ 약 5836만원, 84㎡는 약 679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84㎡ 세대는 기존 분양가 2

억8670만원에서 변경 분담금이 반영된 금액이 3억6000만원대로 제시돼 부담액이 7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는 조합원과 준조합원 물량의 세대별 증액분을 합산하면 전체 추가분담금 규모가 225억~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조합 측에 공사비 증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설계변경 내역, 공종별 물량·단가, 기존 도급공사와의 중복 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공사와 운영비, 업무대행·분양대행 관련 계약과 지급내역 등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회 자료에 사업 초기 약 140억원의 매몰비용과 2025년 말 기준 약 84

억원의 결손금이 기재된 점을 들어 사업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도 요구하고 있다.

유정호 비대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려면 왜 돈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세대별 금액을 산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검증 없이 추가분담금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창호 조합장은 “물가와 자재비 상승 등 실제 공사 여건을 반영해 시공사와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과거 집행부에서 발생한 사업비와 정산 문제도 재무제표 작성과 총회 보고 등을 통해 투명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관리·감독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농진청 ‘AI 농사비서’ 시대 연다

사진 찍으면 병해충 진단 ‘AI 이삭이 2.0’ 출시

농촌진흥청이 축적해 온 방대한 농업기술 데이터가 인공지능(AI)을 통해 농업인의 손안으로 들어간다.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이상 부위를 촬영하면 병해충을 진단하고, 음성으로 질문하면 영농기술을 안내하는 ‘AI 농사비서’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특화 인공지능 영농 상담 서비스인 ‘AI 이삭이’ 2.0을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AI 이삭이’는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검증된 농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인의 영농 현장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다.

이번 2.0 버전은 단순한 정보 검색과 상담을 넘어 실제 농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대표적인 기능은 AI를 활용한 병해충 진단이다. 농업인이 병해충이 의심되는 작물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올리면 AI가 사진을 분석해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작업 중 휴대전화 조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성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음성 대화 기능도 적용했다.

농가별 상황에 맞는 비료와 농약 정보를 제공하고 영농일지까지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병해충 진단부터 농작업 관리까지 하나의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도 갖췄다.

농진청은 AI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56만 건의 농업기술 자료와 30만 건의 병해충 영상, 1,800여 건의 교육영상을 학습에 활용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쉽게 이용하도록 큰 글씨와 직관적인 화면 구성도 적용했다.

전북 김제에서 청년농업인으로 활동



농촌진흥청이 축적해 온 방대한 농업기술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 농업인의 손안으로 들어간다. <사진=농진청>

하는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는 서비스를 체험한 뒤 “구분하기 어려운 병해충 복합감염이나 생리장해 판별과 스마트팜 환경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재훈 농진청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AI 이삭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최신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농업인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지능형 농업 비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수변도시 하수처리시설’ 본격 구축

입찰공고 게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29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수변도시의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핵심 환경기반시설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수변도시 하수처리시설부지(4공구) 내에 하루 1만9천㎥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공사로 토목·조경, 건축, 기계, 전기·계측 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며, 하루 5천



<사진=새만금개발공사>

300㎥ 이상의 재이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마련한다.

추정 금액은 1,054억원, 공사 기간은 시운전 6개월을 포함해 총 1,110일이며, 입찰 방법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추진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이 적용된다.

낙찰자 결정 방식은 기술력 중심의 고품질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 점수 70%와 가격 점수 30%를 합산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입찰 참여 희망 업체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전심사(PQ)를 거친 후 약 5개월 간 기본설계서 및 입찰서를 작성·제출하게 된다. 이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수변도시의 쾌적한 정주 환경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입찰과 설계·시공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서 고향사랑기부제 대대적 홍보

군산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2026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고향사랑e음’과 더불어 올 상반기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헬로’를 추가 도입해 모금 창구와 홍보채널을 다각화했다. 아울러 지역 내 주요 행사장 및 유관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며 현장 밀착형 홍보를 꾸준히 펼쳐왔다

이번 축제 기간 운영되는 홍보부스에서 방문객들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담례품 신청 방법 등 기부제 전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를 대표하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담례품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특히 시는 축제 기간 현장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하는 참여자에게 기본 담례품 외에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 원권을 추가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전국에서 오신 많은 방문객들에게 군산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매력적인 담례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부금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내장산문화광장 ‘야의 나무 놀이터’ 무료 운영

정읍시 목재문화체험장이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내장산문화광장 어린이놀이터에서 ‘야의 나무 놀이터’를 무료로 운영한다.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이 목재로 만든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놀이터는 천사하어로즈 옆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단,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는다.

행사장에는 친환경 목재로 만든 놀이기구 10여 종이 설치된다. 어린이들은 야외에서 자유롭게 놀며 나무의 감촉을 느끼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나무의 감촉을 느끼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더 시민과 관광객이 목재 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재문화체험장과 야의 나무 놀이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과 기타 문의는 정읍시 시설운영과 산림휴양시설팀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현장 소통 강화

익산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정호 익산시장을 비롯해 익산상공회의소 관계자와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입주기업 간담회의 두 번째 자리다. 지난 익산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제2일반산업단지 기업들의 경영 현안을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비롯해 수출기업 지원 정책과 산업단지 환경정비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정호 시장은 “제2일반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역 상권 활력 최선 2(題)

지역화폐 40억원 추가 발행

정읍시가 정읍사랑상품권을 40억원 추가 발행하고 10월부터 판매일을 매월 1일과 15일로 나눈다. 월초 구매 시기를 놓친 시민도 같은 달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억원씩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읍사랑상품권 총 발행 규모는 당초 1040억원에서 1080억원으로 늘어난다.

10월부터는 매월 1일과 15일 오전 10시에 각각 50억원씩 판매한다. 월초에 판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를 나눠 더 많은 시민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용 조건은 기존과 같다. 할인율은 12%이며,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연 800만원이다.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시는 발행액 확대와 판매일 분산으로 상품권 혜택이 더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품권을 통한 소비가 지역 가맹점의 매출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랑상품권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하는 수단”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살피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추가 신청

정읍시가 상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안정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게 사업자당 50만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3일까지다.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11월 중 차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1억원 이하야 하며, 올해 4월 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아야 한다.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은 대표 가운데 1명에게만 지급한다.

지난해 매출이 없는 사업자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도 대상에서 빠진다.

시는 지난 4월 소상공인 4092명에게 안정지원금 총 20억 46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가맹점의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가 신청에서는 읍·면·동과 함께 안내를 강화해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청년 식품창업기업 판로 넓힌다

‘푸드워크 코리아’ 참가 기업 모집… 10월 2일까지

익산시가 지역 청년 식품창업기업의 제품을 대규모 식품산업 전시회에 선보이며 새로운 판로와 사업 기회 발굴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2026 푸드워크 코리아’에 참가할 청년 식품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익산시가 전북 특별자치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민간 투자사 크립톤과 체결한 ‘애그리푸드테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마련됐다.

시는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의 농식품·생명산업 기반에 공공기관의 지원역량과 민간 투자 네트워크를 연계해 청년 식품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2026 푸드워크 코리아’는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1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으로, 국내외 식품기업과 바이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식품산업 전시회다.

시는 지역 청년기업이 현장에서 소비자와 국내외 식품업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제품을 알리고, 새로운 판로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총 10개사 이내를 선정해 참가를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식품창업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여야 한다.

모집 분야는 가공식품을 비롯해 간편식·냉동·냉장식품 등 종합식품과 지역농산물·축산물·특산물 등을 활용한 로컬푸드 분야다.

신청 기업에는 통합부스를 통한 제품 전시·홍보와 함께 기업별 교육·멘토링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0월 2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철새도래지축산농가 집중

정읍시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해의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인접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이 커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야생멧돼지에서 검출이 늘고 혈장단백질 사료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돼 시는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철새도래지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인근을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구간 6곳을 지정해 관리한다.

가축질병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통제초소 5곳을 가동해 산란계와 오리 농가로 질병이 전파될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농장이나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용계동 또는 정우면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아야 한다. 소독 후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휴대해야 해당 농장과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9월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해 소 사육농가 1680호

의 9만 7000두와 염소 사육농가 160호의 1만 7000두에 대한 접종을 마쳤다.

앞으로 가축 이력관리 체계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연계해 농장별·개체별 집중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올해는 해의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고 인접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나타나는 등 방역 위험이 커졌다”며 “철새와 야생멧돼지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하려면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차단방역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제6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현장 대응체계 강화

군산시는 오는 10월 8일 제64회 군산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이고 함께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올해 은파호수공원에서 문화예술공연과 불꽃쇼가 진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모일 것에 대비해 인파·시설·교통·주차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행사에 앞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와 행사장 시설물, 관람객 동선, 인파관리, 구조·구급대책 등을 꼼꼼히 확인

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특히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물빛다리와 수변 데크 등 수변시설은 하중과 밀집도를 고려해 출입구 및 이동구간을 통제·관리하고, 관람객 이동 동선을 확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교통과 주차관리에도 인력을 다수 투입한다.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차단속반, 교통지도 인력, 해병대전우회 등이 주요 교차로와 진입로의 교통흐름을 관리하고, 불법 갓길주차 단속과 주차장 안내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꽃쇼에 따른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사장 주변 일만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군산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에는 살수차와 산불 진화 인력을 배치해 화재 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시민의 날은 군산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시민주권도시 군산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나누는 뜻깊은 날”이라며 “많은 시민이 찾는 행사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인파와 교통, 시설물, 화재·구급 등 각 분야별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행사를 찾으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파호수공원에서 아름다운 가을밤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지송길 기자

‘NS푸드페스타 익산’ 어디서 열릴까?

10월 16~17일 개최

익산시가 K-푸드 식품문화축제 ‘NS푸드페스타’를 앞두고 이색 홍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17일까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은 오는 10월 16~17일 이틀간 하림 퍼스키친에서 열린다. 전국 규모 요리경연을 비롯해 유명 셰프 쿠킹쇼, 체험·전시 등 다양한 K-푸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퀴즈 이벤트는 NS푸드페스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축제 개최지를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퀴즈는 “대한민국 대표 K-푸드 축제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이 열리는 도시는 어디일까요?”라는 질문으로 진행되며,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도 함께 제시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은 하림을 비롯한 식품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기반이 집적돼 있다. 식재료부터 식품 생산·가공, 유통, 연구·지원까지 이어지는 K-푸드 산업 생태계를 갖춰 식품문화축제 개최지로 의미를 더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NS푸드페스타와 익산을 함께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방식 개선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강화

군산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과 세대원 등계순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되면서 재혼 가정 등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려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세대원 등계 순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기록됐다.

3순위 등계 대상이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돼 배우자의 자녀 등은 후순위(신고 순서)로 밀려났으나, 앞으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같은 순위로 포함된다.

아울러 등·초본 발급 시 제출 목적에 따라 ‘일반’과 ‘상세’ 중 필요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읍·면·동 민원창구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서류 발급 과정에서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운영 최선”

익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안전한 거래와 현장 안전을 함께 챙긴다.

익산시는 29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와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및 소방·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통종사자의 PLS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돕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PLS 교육은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예방하고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개념 △농약 잔류허용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다뤘다.

시는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재난 대응 등 분야별 교육과 현장점검을 지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 관련 입장 밝혀

정읍시는 최근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장기 보관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이는 근로자들의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 보관일 뿐, 이탈 방지 등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에는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변경, 통장 개설 및 의료검진 등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필수 행정절차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언어 소통이 어렵고 한국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계절근로자와 일손이 바쁜 농가(농장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읍시가 행정 대행 서비스 차원에서 서류 제출 및 등록 절차를 직접 돕는 과정에서 여권을 임시로 전달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및

출입국관리관서 제출 등 일련의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근로자 본인에게 즉시 여권을 반환해야 했으나, 업무 처리 과정 및 농가 소통 전달 체계상의 지연으로 인해 반환 시점이 일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계절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의 여권 보관·통제 관행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직 근로자의 편의와 행정 지원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절차 완료 즉시 여권 개별 반환 원칙 강화 △근로자 대상 여권 수령 및 보관 안내 다국어 교육 실시 △농가 및 근로자 간 소통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 수지면 “송전선로 백지화하라”

주민들 사업 전면 철회 요구 나서 “한전, 구례 민원에 변경안” 주장 설명회도 없어 ‘깜깜이 행정’ 반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하는 광양변전소-신장수변전소 간 신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남원시 수지면 주민들이 “구례군 지역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아무 관련 없던 수지면을 희생양 삼았다”며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원시 수지면 송전선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전의 부당한 노선 변경 철회 및 최초안(제1안)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초 한전의 제1안

(최초안)은 기존 설치된 송전선로 축(광양-순천-구례 산동면-남원 주천·이백·산동면-장수 변압면)을 따라가는 최적의 노선이었다. 그러나 구례군 산동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한전은 주민 설득 대신 남원시 수지면(견두산)을 통과하는 제2안(수지를 경유하는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한전이 주민 대상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어용 입지선정위원회와 일부 이장만을 대상으로 단 1회 설명회를 개최한 뒤,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깜깜이 패싱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주민들이 대화와 설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2개월)을 요구했음에도 한전 측은 “10월 8일 이후는 절대 안 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혀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송전선로 경과지로 지정된 견두산 자락은 조상들의 액막이 설화가 내려오는 역사적 명산일 뿐만 아니라, 지리산 마지막 자락에 위치한 마애여래입상이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이자 유일한 ‘청노루귀꽃’ 자생지다. 매년 이른 봄 수많은 야생화 탐방객이 찾고 있는 생태 관광지에 초고압 첩탑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기존 송전선로를 두고 수지면으로 멀리 우회하는 것은 전문학적인 국민 협세를 낭비하는 배임 행위”라면서 “수지면민을 기만하는 밀실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수지면 후보지 계획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1조1천억 미래산업 국책사업 ‘날개’

군수 기자간담회에서 청사진 제시 AI미래·인구정책 신설 조직 개편

유희태 완주군수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 1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미래 첨단산업·인재 육성 국책사업 유치 결실을 알리며, 전북 4대 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복경제도시 완주’ 완성을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완주군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10만 716명(외국인 포함 10만 6,064명)을 기록하며 정읍시를 추월해 전북 4대 도시 반열에 올라섰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도내 1위(2022년), 귀농·귀촌 인구 1위(2025년), 수출액 3위, 산단 규모 3위 등 탄탄한 경제 지표로 도시 경쟁력을 입증한 완주군은 이번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발판 삼아 지역 대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도내 산업단지 총 생산액의

43.7%, 총 수출액의 42.8%를 책임지는 완주 산단의 강력한 산업 기반이 이번 미래 산업 도약의 디딤돌이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완주군이 제시한 핵심 성장동력은 정부 공모로 최종 확정된 4대 첨단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 7,368억 원 규모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이서면 일원에 차세대 피지컬 AI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2,741억 원 규모 ‘2027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기존 완주 일반산단 등 5개 산단을 AI·로봇 기반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여기에 642억 원 규모의 제3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한솔케미칼 등과 함께 핵심 소재 공급망 자립화에 나서며, 우석대와 협력하는 583억 원 규모의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수소에너지와 피지컬 AI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입학-취업-정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자체 민생안정지원금은 93.3%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남계리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과 수도권 먹거리 시장 개척을 위한 화성시·서울에너지공사와의 상생협력 역시 주요 결실로 제시됐다.

완주군은 핵심 역점 정책을 실행할 조직개편을 오는 12월 31일을 목표로 단행해 기존 32개 과 204개 팀에서 35개 과 205개 팀으로 확대 재편한다. 부군수 직속으로 ‘AI미래담당관’과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미래 산업과 인구 정책의 지휘본부로 대폭 강화하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와 축산지원과를 편입하고 농식품유통과와 농산유통팀을 신설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농정을 일원화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제2회 양지천 사진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상 김승진 씨 ‘경천과 양지천’ 수상작 관광 홍보 콘텐츠 활용

순창군이 양지천과 경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사계절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한 ‘제2회 순창군 양지천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지난 8월 실시한 공모전 작품 접수 결과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작품 중 총 21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은 1점이며 시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지급되며, 최우수상은 1점, 150만원과 상패, 우수상 4점, 상장과 시상금 각 50만원, 입선 15점, 상장과 시상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포항시 김승진 씨의 ‘경천과 양지천’이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양지천과 경천이 어우러진 풍경을 조화롭게 담아내며 순창의 대표 수변경관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무주군 유지훈 씨의 ‘아



제2회 순창군 양지천 사진공모전 수상작

<사진=순창군>

름다운 양지천의 아침’이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양지천·경천에 반하다’를 주제로 양지천과 경천의 수선화, 툄림, 뱀못, 꽃잔디, 야간경관 등 다채로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 순창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국 각지의 참가자들이 출품에 참여하

면서 순창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양지천과 경천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군은 수상작을 향후 군정 홍보자료와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해 순창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흥부제 어린이·가족 체험 프로그램 ‘풍성’

과학·수학 체험부스 34곳 운영 만인무과별시 등 역사·전통 체험

남원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광한루원 및 요전면(월궁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34회 흥부제’에서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함께 하는 남원 과학축전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34개 체험부스를 통해 흥부·제비·박을 소재로 한 과학실험과 만들

기, 환경·자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수학체험센터에서는 놀며 질문하고 깨닫는 ‘수학체험한마당’을 주제로 ‘박을 타면 보물기?’, 아가 모그래프 기념품 만들기, 수학 매직큐브, 다각형 팬이, 퍼즐 책갈피, 원주를 전등갓 만들기, 터틀 로봇 행운카드 등 흥부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수학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직업체험(키자니아 GO!)과 흥부과자 콜라주 체험도 마련된다.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남원 만인의총과 연

계한 만인무과별시에서는 조선시대 무과시험을 체험과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남원의 역사와 흥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 있다.

남원소방서 체험부스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피지컬AI 로봇 체험존에서는 로봇 군무 공연과 로봇 조종 체험, 드론 4DX 영상체험 등을 선보이며, 천문관에서는 에어돔 영화관과 대형 달 모형물, 사진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위기가구 먹거리·생필품 ‘그냥드림’

완주지역자활센터내 개소

주 3일 운영 가구당 최대 3회

완주군이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절친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완주군 그냥드림’ 전용 공간을 새롭게 완주지역자활센터 1층에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열린 개소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성종기 완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지역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그냥드림’은 기존 푸드뱅크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식생활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마련한 긴급 복지 사업이다.

물품 지원 과정에서 확인한 위기가구에는 초기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공적급여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그냥드림 사업장은 이날 초 완주지역자활센터 내 임시 공간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호 단독 공간을 갖추게 됐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생필품 꾸러미를 하루 최대 30가구에 제공하며,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2회째 방문부터는 심층 복지상담을 함께 진행해 위기 상황 해소를 돕는다.

김진왕 완주지역자활센터장은 “위기 상황에 놓여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장 운영과 위기가구 발굴·연계에 정성을 쏟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과도한 의전 줄인다…“내빈보다 시민”

내빈소개·축사 대폭 간소화

시민·참석자 중심 행사 조성

남원시가 각종 행사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과도한 의전을 줄이고 시민과 참석자가 중심이 되는 행사문화 조성에 나선다.

남원시는 민선9기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기조에 맞춰 각종 행사의 의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격식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남원시 의전 및 행사 운영 간소화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사에서 상당한 시간을 차지했던 내빈소개와 축사를 대폭 간소화한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개별 호명을 최소화하거나 일괄 소개한다. 축사와 인사말도 짧고 내실 있게 바꾼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2027년 재난안전예산 843억 심의

순창군이 지난 2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재난안전예산과 주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7 회계연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제21회 순창 장류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제3회 순창 코리아 떡볶이페스타 안전관리계획(안) 총 3개 안건이 상정됐다.

군은 17개 부서에서 요구한 147개 사업, 총 843억 3,900만원 규모의 2027년도 재난·안전 사업 예산에 대해 사업 적정성, 투자 우선순위,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외국인 주민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

완주군이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30일부터 삼례지역 농가에서 근무하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삼례농가 계절근로자 17명을 대상으로 1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매주 1회 2시간씩 수요일과 금요일 2개 반으로 운영하며, 구와여성경로회관과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계절근로자의 실제 생활과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 한국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현재 군은 지난해 8월 개소한 완주의

국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주민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초급·중급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일요일 초급·중급 한국어교육을 시작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토요일 초급·중급반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지난 8월부터 TOPIK I 대비 과정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학습 기회를 넓히고 있다.

특히 교육생들이 수업을 위해 별도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지와 생활공간을 고려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장류축제 글로벌 홍보 ‘박차’

순창군이 제21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순창의 관광자원과 전통 장류문화를 알리며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군은 지난 28일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30명을 초청해 순창군 일원에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마련됐다. 참가 유학생들이 순창의 관광과 장류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국어와 SNS를 통해 이를 공유하며 장류축제의 매력을 해외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유학생들은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군립공원을 찾아 수려한 자연경관을 둘러본 뒤, 순창고추장을 활용한 소불고기를 맛보며 지역의 맛을 경험했다.

이어 순창발효테마파크를 방문해 발효문화와 장류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고추장 담그기와 떡볶이·인절미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1:1 맞춤형 영양상담 첫 도입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영양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영양 스크리닝 및 1:1 맞춤형 영양상담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센터가 올해 초 기반을 다지고 지난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을 펼치며 따라 올해 처음 마련한 이용자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식습관과 영양 문제를 꼼꼼히 파악하고, 전문 영양사의 개별 상담을 거쳐 일상생활 속 실천 가능한 맞춤형 영양관리 요령을 안내한다.

절차는 사전 동의와 기초자료 수집,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마친 뒤 전문 인력이 시설을 직접 찾아 신체 계측과 영양 스크리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집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진단하고 추가 측정이 필요한 현장에서 계측을 병행한다.

평가에서 7점 이하를 받은 고위험 이용자는 우선 상담 대상으로 분류해 시설과 일정을 조율한 뒤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8점 이상인 이용자도 시설 측에서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영양상담은 이용자별 개별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센터 영양사가 이용자의 영양상태와 식사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양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상담 결과는 기록해 시설에 회신하며, 지속적인 영양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전인구 테크윙 前 대표 순창군 ‘고향사랑’ 1천만원 기탁

순창 출신 기업인 전인구(㈜테크윙 전 대표(현 고문))가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변함없는 고향사랑을 이어갔다.

군은 29일 전인구 고문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 고문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순창군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순창군에 2,000만원을 기탁하며 당시 기부한도 상향 이후 순창군 첫 최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올해도 1,000만원을 기탁하면서 3년 연속 고액기부를 실천, 고향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전인구 고문은 “고향 순창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부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3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기부는 금액을 넘어 고향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긴 뜻깊은 나눔”이라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순창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정읍지역 건설업체·어린이집 원장 장학금 총 400만원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8일 ㈜엠에스건설기술단(대표 김성모)에서 300만원, 현정어린이집 안원찬 원장에게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

수성동에 있는 엠에스건설기술단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다. 지난 2월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기탁해 올해 기탁액이 500만원이 됐다.

하북동에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안 원장도 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마련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마음을 전해주신 두 기탁자께 감사드립니다”며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날 기탁된 장학금 400만원을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인재 육성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 익산 한부모가족에 온정

익산시는 29일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쁨의하우스’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익산시청 복지국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 문보경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부모가족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성금은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이 지난 9월 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으로, 기쁨의하우스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문보경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마련한 성금이 지역의 한부모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은 도내 7개 지부, 40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익산지부에서는 4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진안군-전북은행 ‘공부방 제237호’ 오픈

아이들의 꿈과 희망 응원

진안군은 29일 진안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최철)에서 전북은행의 ‘JB희망의 공부방 제237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군 부군수를 비롯해 최철 진안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장, 이은경 주천지역아동센터장, 최종구 전북은행 부행장, 유근식 진안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JB희망의 공부방 지원사업’은 전북은행이 지역아동센터의 노

후·불편 시설을 개선하고 학습기자재와 시설·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안군에서는 진안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와 주천지역아동센터 등 2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각 센터 모두 약 1,300만원의 책상·의자 등 센터에 필요한 환경개선을 지원받아 아동에게 적합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했다.

최철, 이은경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방과 후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두산전자 김제공장 직원들, 주거환경개선 봉사

보일러 교체·환경정리 등

김제시는 29일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주)두산전자 김제공장 임직원과 함께 용지면 일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해 DOO’ 3차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재)바보의나눔 지정 기탁 사업의 일환으로 (주)두산전자 김제공장의 후원을 받아 추진됐다. 이날 보일러 교체 및 주거환경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소외계층의 난방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4회 계획 중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활동에는 (주)두산전자 김제공장 임직원 8명과 전문 재능봉사자 1명이 참여해 용지면 내 에너지 취약계층 2가구를 방문해 노후된 보일러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또한 두산전자 임직원들은 어르신 홀로 옮기기 어려웠던 무거운 가구와 대형 짐을 직접 들고 이동 배치하는 등 집 안팎의 주거환경을 말끔히 정리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농협은행 완주군지부 ‘사랑의 쌀’ 기탁

NH농협은행 완주군지부가 완주군청을 찾아 관내 취약계층과 소외이웃을 위해 600만 원 상당의 10kg 백미 165포를 기탁했다.

기탁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완주군지부는 지난 7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으며, 2023년 12월에도 2,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 완주군지부는 지난 2024년 8월 기존 전주완주지부에서 분리돼 단독 지부로 출범했다.

원천연 지부장은 “단독 지부 개점 이후 완주군민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학사업과 나눔 활동 등 다양한 환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완주군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군-선운산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려

고창군이 선운산농협, 대상농협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먹거리 나눔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창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 60여 명에게 쌀과 고기, 과일 등 식재료와 통닭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전달했

다.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등 안정적인 근로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농촌 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나눔을 통해 조금이나마 고향의 따뜻함과 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황산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태양광 안심조명’ 설치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윤충근)와 29일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태양광 조명(안심조명) 설치 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야간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된 조명을 교체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에너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지기동대원들은 대상 가정의 마당과 현관 입구 등에 친환경 태양광 LED 센서등을 직접 설치하며 구석구석 안전을 살렸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안심조명은 낮에는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야간에는 움직임을 감지해 밝은 빛을 밝혀줌으로써, 어르신들의 야간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군산 중앙동 동부식당 ‘착한가게’ 25호점 가입

군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영란)는 관내 음식점인 동부식당(대표 박은주)이 9월 29일 ‘착한가게’ 25호점에 가입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관 전달식에는 김성호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배길만 부위원장, 이영란 중앙동장이 함께 자리해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소상공인들이 매일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동참한 동부식당은 반지회덮밥 명소로 방송 프로그램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한 맛집이다. 박은주 동부식당 대표는 이번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가을철 호흡기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1. 외출 후 손 씻기



2. 마스크 착용하기



3. 실내 습도 조절 (50~60%)



4. 충분한 수분 섭취



〈一事一言〉



642억 반도체 실증 거점 권 전북대. ‘건물’ 아닌 ‘생태계’를 올려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가뭄 속 단비…전북대 반도체 특화단지 거점 선정

전북 고등교육과 지역 산업계에 오랜 만에 반가운 낭보가 전해졌다. 전북대학교가 총사업비 64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케미컬 특화단지 실증 거점’ 구축 사업의 핵심으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학령인구 절벽과 대학 기부금의 극단적인 수도권 쏠림 속에서 재정적 기아 상태를 겪던 도내 대학 생태계에 유입된 640억 대의 대형 국책 예산은 그 자체로 가뭄 속 단비와 같다. 전북대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배움터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연구·실증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기회를 잡은 것은 도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이번 실증 거점 구축 사업은 단순한 학술적 연구나 상징적 공모 당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새만금·익산·완주 중심의 첨단 산업 포스트폴리오에서 실질적인 앵커(Anchor)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조성될 실증 센터는 핵심 장비 8종을 도입해 반도체 세정·증착·식각 등 첨단 케미컬 소재를 생산라인 투입 전 검증하는 전초기지 가 된다. 2031년까지 2,000명이 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도 맡게 된다.

거대 국책 사업 ‘시설 투입’에 그치지 않아야

그러나 우리는 대규모 국책 예산이 투

입된 사업들이 과거 어떻게 흐지부지되었는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화려한 센터 건물을 지어 올리고 고급 첨단 장비를 들여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하거나 대학의 실적 자랑용 전시 행정에 그쳤던 사례가 전국 곳곳에 수도북하다. 거대한 국책 사업의 유지가 곧 지역의 성공을 보장하는 수표는 아니다. 이번 642억 원이 단편적인 ‘건물 짓기’나 ‘장비 구매’라는 토목·비품 사업으로 소모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산업·인재 유치로 이어지는 진짜 산학협력 완성해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이 찾아오는 산학협력 생태계’의 완성이다. 반도체 산업은 장비와 시설만 갖춰놓는다고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장비를 활용해 연구하고 생산성을 높일 기업들이 전북으로 모여들어야 한다. 전북대와 전북자치도, 그리고 관내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부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과 밀착해 이들이 필요한 정밀 기술이 실증 센터에서 곧바로 검증될 수 있도록 맞춤형 트랙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전북대의 실증 거점을 빌미 삼아 동지를 틀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산학협력의 선순환 고리가 완성된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청년 사수’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으로의 인재 유출은 곧

지역 소멸의 직통 경로다. 전북대가 양성해 낼 반도체 전문 인력들이 졸업 후 다시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면, 이 수백억 원의 사업은 타 지역 대기업에 좋은 인재를 공급해 주는 ‘위탁 교육기관’에 불과하게 된다. 도내에 구축 중인 첨단 산업단지 및 유치 기업들과 연계하여, 교육받은 지역 청년들이 전북 내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과 대학의 핵심 의무다.

아울러 전북대는 도내 최고 거점 국립대로서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원광대·군산대·전주대 등 도내 타 대학들과도 이 실증 인프라를 전향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전북대 홀로 추진하는 독식형 사업이 아닌,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하는 ‘전북형 반도체 얼라이언스’로 확장될 때 이 642억 원의 가치는 몇 배로 증폭될 것이다.

642억 원이라는 도민과 국민의 혈세는 전북 고등교육의 체질을 바꾸고 지역 산업의 체급을 올리라고 주어진 엄청난 기회다. 전북대와 전북도정은 자화자찬을 거두고, 사업의 첫 단추부터 치밀하고 철저하게 끼워 나가야 한다. 건물이나 성과 표에 매몰되지 않고 ‘사람과 기업이 몰리는 첨단 산업의 토대’를 다져내는 것, 그것이 전북대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사 설

착공 약속 어긴 자광. 전주시는 무엇을 믿고 또 기다리나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결국 약속한 착공 시한을 넘겼다. 그런데 전주시가 내놓은 답은 사업 취소도, 협약 파기도 아닌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다. 6조원대 초대형 개발사업을 두고 시민과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다시 시간을 준 것이다.

전주시와 자광의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법률자문 결과 협약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상위법인 주택법상 착공기한이 5년이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률적 판단은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과 자광에 아무런 검증 없이 다시 시간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전주시가 따져야 할 것은 자광의 ‘사업 의지’가 아니라 ‘사업 능력’이다. 자광은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와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식 도급계약 체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470m 관광타워와 3천500

여 세대 공동주택 등을 동시에 착공·준공하겠다는 6조원대 사업이다. 말과 계획서만으로 밀어붙일 사업이 아니다.

전주시는 자광에 확정된 시공사와 도급계약, PF를 포함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자기자본 투입 능력, 동시착공·동시준공이 가능한 공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검증 결과도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의 신뢰다. 전주시는 그동안 협약 불이행 시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막상 시한이 지나자 법률적 한계를 이유로 사업 속행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애초 협약에 왜 1년이라는 착공 시한과 취소 조항을 넣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전주시는 자광의 사업 성공을 기다리는 기관이 아니다. 시민의 재산과 도시의 미래를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다. 취소하지 않겠다고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라. 자광이 6조원대 사업을 실제로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또다시 약속만 믿고 시간을 주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방임이다.

▲오늘의시

그때 / 김 용 택

허전하고 우울할 때
조용히 생각에 잠길 때
어딘가 달려가 달고 싶을 때
파란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뚝뚝 떠가면
더욱더 저녁노을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둥근 달을 바라볼 때
무심히 앞산을 바라볼 때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귓가를 스칠 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할 때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때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내 그리움의
그 끝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까.

ㅣ 독자투고 ㅣ

초고령 사회, 어르신 안전보행을 위한 작은 배려와 관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도로 위 고령자 교통안전문제가 매년 심각한 사회적 관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 중 다수가 도로를 건너거나 골목길을 걷던 중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좁아지고 청력과 반사신경, 보행속도가 저하된다. 신호등의 초록불이 켜져도 제한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두운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참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보행자 스스로의 주의와 운전자의 양보,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의 삼박자가 맞물려야 한다.

첫째, 고령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 반드시 지정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 외출 시에는 어두운 옷 대신 밝은 색 옷을 착용하거나 야광 조끼, 반사판이 부착된 지팡이·모자 등을 활용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골목길이나 노인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언제나 어르신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하고 반드시 서행

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춤’을 생활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경적을 울려 재촉하기 보다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배려 운전이 요구된다.

셋째, 가족과 주변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다. 평소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외출할 때 밝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차 조심해서 다녀오시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된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거동이 불편한 보행자가 된다.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어르신을 내 부모, 내 가족이라 생각하는 작은 배려와 관심이 더해질 때 비로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이 완성될 것이다.

정읍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김지혜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출생.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자신의 모교인 임실 마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198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에 ‘섬진강 1’의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2001년 독립단편영화 ‘둘’에 이어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대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8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느리게, 깊이 있게 ,
세상을 만나다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tel 063)282-9600~9603

fax 282-9604 , 283-8801

10월, 첫 축제는 군산시간여행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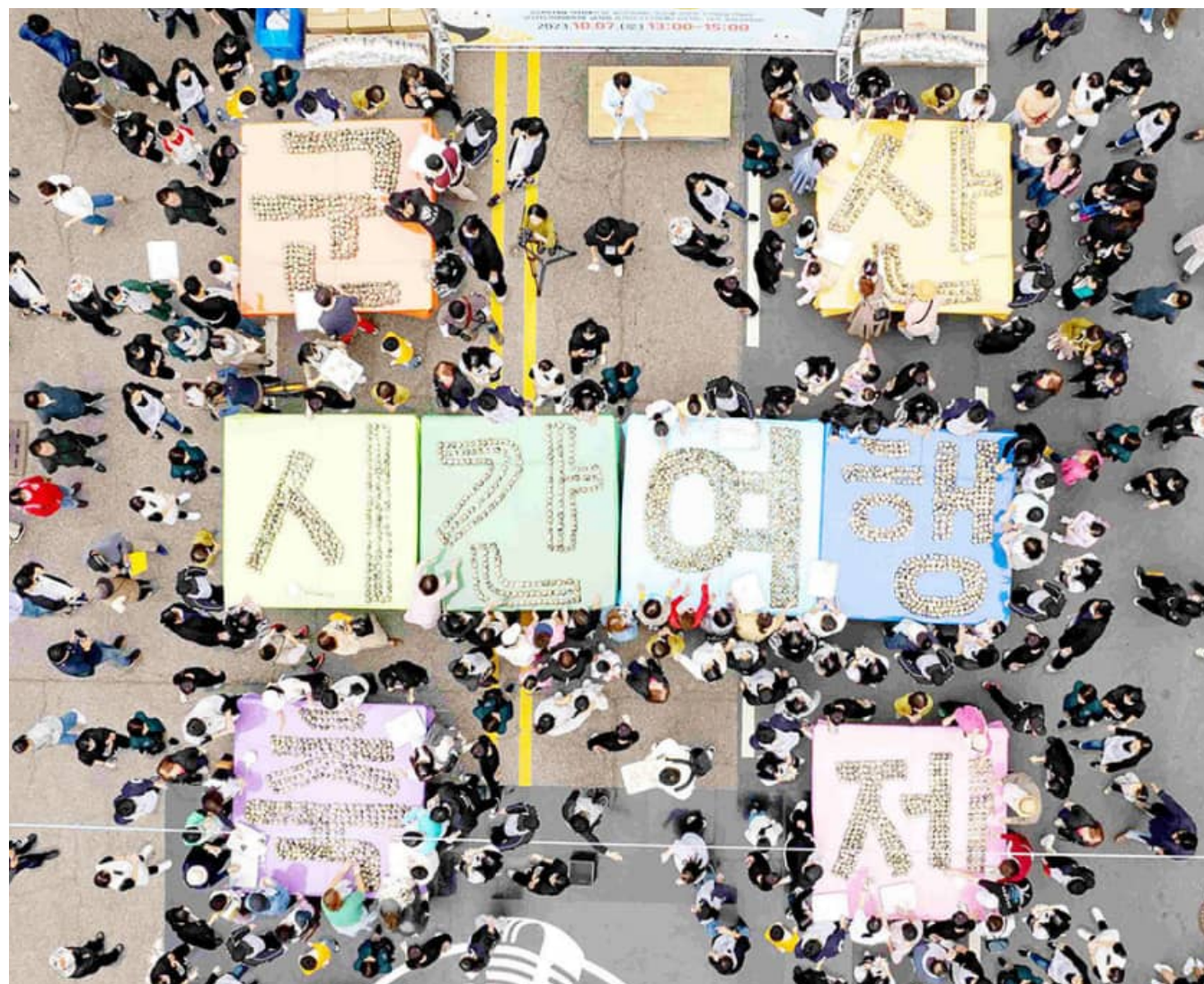
거리 곳곳이 화려한 무대 체험형 프로그램·다채로운 공연 가득
해군 군악의장대부터 린·하이키 등 풍성한 공연 라인업 눈길

축제의 계절인 10월, 군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여행이 펼쳐진다.

바로 올해 열네 번째를 맞이하는 '2026 군산시간여행축제'다.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친구, 연인, 가족 모두 함께 즐거움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쏟아지는 군산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편집자 주〉



■ 선선한 가을밤, 달빛 아래 열리는 축제의 시작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2일, 군산시간여행마을은 거리 전체가 화려한 무대로 전환된다. 군산을 처음 찾는 해군 군악의장대의 웅장한 공연으로 시간여행축제의 서막을 올린다.

군악의장대의 절도 있고 품격 넘치는 공연은 축제장의 흥을 돋우고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어서 펼쳐지는 '글로벌 모던 플래시몹'은 근대시기 군산에 스며든 다양한 문화를 플래시몹 형태로 풀어내, 마치 1930년대 근대 군산 속으로 직접 들어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축제가 지닌 상징성을 보여줄 '군산시립예술단 공연'은 현장의 몰입도를 한층 높이는 동시에 다가올 축제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더한다.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여느 축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짙은 의식은 최소화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군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주제영상과 개막 퍼포먼스, 여기에 감성 발라드 린과 에너지 넘치는 하이키(HI-KEY)의 무대까지 더해져 축제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군산의 넘치는 흥!

축제 기간 펼쳐지는 공연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흥겨움을 선사한다.

거리형 축제의 맛을 살린 '스트릿 마당'에서는 군산의 역사를 담은 뮤지컬과 화제의 공연팀인 동미자전지 음악단 퍼레이드,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전북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음악 인제 육성 및 대중음악 콘텐츠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인 '스테이지 레드콘'에서는 도내 실력과 뮤지션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강렬한 사운드와 빛나는 조명이 가을밤 달빛과 어우러지는 '글로벌 EDM'은 역동적인 무대로 군산의 밤을 뜨겁게 달군다.

'군산향 밤부두 쿠폰'은 항구도시 군산의 가을바람에 근대음악을 실어 깊은 가을의 정취를 전한다. 당시의 음악과 복장 등 근대 콘텐츠를 총망라한 공연으로 모두의 발길을 멈추게 할 예정이다.

개막식 날 린과 하이키에 이어, 둘째 날 신예영과 앳하트, 셋째 날 정서주와 아다의 무대까지 이어지는 '시간여행 콘서트'는 축제의 화려한 정점을 찍으며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함께 즐기는 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우리 모두 3·5만세'는 매일 오후 3시 5분, 그 시절 군산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람객이 직접 만세 운동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함께 외치고 행진하며, 뜨거웠던 그날의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는 주인공이 되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919 태극기 계양작전'은 일본군 순사를 피해 곳곳에 숨겨진 계양대를 찾아 태극기를 올리는 미션 게임이다. 최근 MZ세대의 트렌드로 떠오른 '경찰과 도둑'을 근대 버전으로 재해석해 눈길을 끈다.

'K-관광섬을 찾아라'는 군산의 관광자원인 섬 관광을 홍보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수만 개의 볼품 속에서 '군산의 섬'을 찾는 사람에게겐 엄청난 행운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군산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시간을 수집해 기념품으로 교환하는 '모아모아 시간', 공중전화에서 걸려 오는 전화를 받아 미션을 수행하는 '받아라! 미션 공중전화' 등 군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관광객의 참여를 기다린다.

■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여 만드는 화합의 장

군산시간여행축제에는 축제장 구축구역을 채우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다.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지역 대학생들의 폐기와 예술인들의 깊이가 녹아있는 무대가 축제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과와 실용음악학부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뮤지컬을 선보이는 'K-컬처 퍼포먼스'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감성을 생생하게 전한다.

군장대학교 패션산업과 학생들이 모델과 디자이너로 나서는 '세계민속의상 패션쇼' 역시 화려한 런웨이를 현장을 채운다.

각 대학의 전문성을 축제 콘텐츠로 녹여내며 지역 청년들이 직접 축제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된다.

군산 지역 예술인들이 무대에 오르는 '스테이지 군산'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순수함과 열정이 넘치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처럼 지역 청년들과 예술인들이 관광객과 호흡하며 함께 만드는 무대야말로 '시민주권도시 군산'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군산에서 전하는 시간여행 초대장

2026년 가을을 온전하게 만끽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 거리 곳곳에 숨겨진 가슴 따뜻한 시간여행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2026년 10월, 잊지 못할 가을의 한 페이지를 '2026 군산시간여행축제'에서 함께 써 내려가 보는 것은 어떨까.

/군산=지송길 기자

